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

A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Sound Home and Healthy Family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전공
교수 유영주

Major in Child and Family Studies, Division of Science for Human Life,
Kyung-Hee Univ.
Professor: Yoo, Young-Ju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건전가정·건강가족에 대한 선행 연구의 고찰 | 참고문헌 |
| III. 건전가정·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을 위한 논의 | |

〈Abstract〉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oncepts of "sound home", and "healthy family". Even though "sound home", and "healthy family" have different meanings and definitions, many researchers are using them in a mixed ways. Therefore, through this paper, I tried to make distinction of the meanings of the above concepts as below :

1. Sound Home :

Basic and fundamental social units and environment which have strong and healthy family members and performs well not only family function, but also have attitudes and willingness to perform family function, and maintain their family value and ethics.

2. Healthy Family :

Social units which have strong and healthy family members and, develop individual personal development - their physical, emotional, social, moral development and self-esteem, self-achievement - and have good interaction enhancement skills - communication, decision making, stress managing strategies - and also maintain family systems.

Whereas "sound home" is more broad concept related to Home Economics, "healthy family" is more related family relations and interaction.

1. 서론

가정학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형성·유지·육성하는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가족)체계 속에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건강하게 성장·발달시키고, 아울러 지역사회 체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정학은 가정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 정의할 때(유영주, 1995) 가정학의 연구 대상은 가정이며, 가정을 건전하게 성장·발달시키기 위하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가의 실천적 과제를 연구함으로써 보다 뚜렷한 목표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가족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그 개념 설정이 명확치 않으며, 심지어 가정학자들간에도 가정과 가족의 개념 설정이 모호하여 연구의 결과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데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하나의 현상(phenomena)을 과학적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개념의 명료화는 우선적인 일이다. 과학이 생산하고자 하는 지식은 언어로 표현되며, 좀 더 과장하면 언어를 통해서 지식이 획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Broniski와 같은 과학 철학자는 "과학이란 세상의 운행을 훑내내는 언어 구조이다"라고 정의하

고 있다(장상호, 1978).

개념이란 언어의 기본단위이다. 개념은 사물, 사건, 혹은 사상(事像)을 그것의 독특한 속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개념은 정의에 의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는 관찰적 용어(observational terms), 가설적 구인(hypothetical construct), 그리고 이론적 구인(theoretical construct)에 의하여 각각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하나의 개념은 그것의 내포(intention or connotation)와 외연(extension or denotation)을 갖는다. 한 개념의 내포란 그 개념을 정의하는 속성들의 범위이다. 한 개념의 외연이란 그 속성을 가진 개체의 수를 뜻한다. 이와 같이 두 개념간의 포섭 관계를 가려내어 논리학에서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는 포섭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포섭되는 개념이다(장상호, 1986). 과학에 있어서 개념 정립은 그것 자체가 시간을 요하는 과학적 작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1980년 간행된 가족관계학-가족의 발달적 접근에서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사전적 정의로 정리한 바 있다.¹⁾ 즉 사회적 단위(social unit)로 쓰일 때는 가정과 가족은 같은 개념으로 쓰이지만 가족은 사회적 단위이면서 그 안에 인간들 집단(group)의 뜻이고, 가정은 사회적 단위이면서 거주지(shelter)를 포함하는 환경적 뜻을 지직한 바 있다(유영주, 1980; 13-16).

1) Webster's 사전에 의한 가정·가족의 정의

- ※ 가정 : ① 한 개인이나 가족이 생활하는 장소(거주지를 의미)
 ② 인간이 태어났거나 양육된 장소(고향·본국)
 ③ 집(가정)으로 생각되는 장소
 ④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구성원과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혼으로 파괴된 가정)
 ⑤ 고아나 늙고 무력한 사람을 보호하는 기관인 고아원·양로원·수용소
 ⑥ 원산지 또는 발상지
 ⑦ 많은 게임에서 고을, 결승점을 의미(특히 야구에서 본루로 사용함).
- ※ 가족 : ① 어떠한 신념, 종교, 철학 등으로 연결된 사람들
 ② 동일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③ 부모와 그들이 양육하는 자녀로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적 단위
 ④ 조상이나 결혼에 의해 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들의 집단(친족)
 ⑤ 동일한 조상으로부터의 출계율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친족이나 동족)
 ⑥ 동일한 근원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사물의 집단(생물, 생태학, 언어학, 수학 등)

사회과학자들 특히 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에게 있어서 연구 대상의 일부가 가족인 만큼 가족을 표현할 때 가족과 가정을 혼용해서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그 안의 환경적 의미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사회적 단위로써 가정을 종종 쓰기도 한다.²⁾

그러나 가정학에 있어서의 가정·가족의 의미는 분명히 개념지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가정은 가족이 중심이 되어 가족을 둘러싼 근접 환경, 즉 의·식·주에 대한 물질적·물리적 환경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가정 생활의 주체인 가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채 물질적·기술적·기능적 측면의 의·식·주에 대한 기술교육이 선행되었으며, 의·식·주 특히 의·식에 대한 연구가 팽대하였으므로 가정이라 하면 의·식·주를 포함한 개념이 학문적 발전 과정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한 이유로 가정과 가족은 분명히 구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전가정이나 건강가족을 연구함에 있어서 적어도 가정학자들간에는 합의된 개념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개념 설정이 정리되어야만 연구의 대상·방법 등이 명확히 결정되기 때문이다.

1994년 U. 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 이후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고, 학계, 여성단체,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건전가정·건강가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가정학의 주된 연구 대상인 건전가정·건강가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급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본다.

II. 건전가정·건강가족에 대한 선행 연구의 고찰

건전가정·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을 위하여 우선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외국의 연구

미국에 있어서의 건전가정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서의 연구는 Strong Family, Healthy Family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1962년 Otto에 의하여 시작된 Strong Family에 대한 연구는 Stinnett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계속 연구되어 오고 있다. 그들은 20세기 동안 개인의 발달, 자아성취(self-fulfillment)에 대한 탐구가 중요한 과제로 전개되어 왔으나, 그러한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간과해 버린 것이 미국의 가족문제 발생의 중요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Stinnett, 1986). 즉, 자아성취 또는 자아실현은 일생 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Strong Family, Healthy Family가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족내의 갈등적 관계 또는 문제는 사회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Strong Family, Healthy Family는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는데 효율적 대처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Stinnett, 1986).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가정 생활의 질이 국가의 부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로마, 그리스, 에집트와 같은 거대한 사회의 흥망성쇠는 어떠한 유형(pattern)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들이 최고도로 번영했을 때는 그 사회의 가정이 건전했고 높은 가치가 주어졌으며, 가정 생활이 약화되고 가치가 없고 사회가 극도로 개인주의화 되었을 때 사회는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가정 생활을 강화(Strengthen)하는 것은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Sinnett : 1984-9).

Otto(1962)는 27가족을 대상으로 "다음은 우리 가족의 중요한 장점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_____"라는 질문에 빈곳을 채우는 개방식(open-ended) 항목으로 이루어진 가족 강점 질문지(Family Strength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의하여 5가지씩 기재토록 하였다. 이것은 Pilot Study로서 13가지의 응답들이 나왔는데,

2) 장혁표 외 공역, 가족치료에서 역기능적 가족을 역기능적 가정으로 번역하여 가정과 가족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수(22개)는 “공유하고 있는 믿음, 종교와 도덕적 가치들”이었고, 다음으로는 “서로에 대한 신뢰”, “공유하고 있는 가족전통”, “사람들을 좋아함” 등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응답들이 있었다. Otto는 Pilot Study의 결과로 Strong Family에 대한 개념 체계를 정리하였다. 사전적 의미로는 Strength란 “건강한 성질 또는 상태, 행하거나 갖고 있는 능력, 견고하거나 강인함” 등으로 되어 있으나 각 가정의 Strength의 특질은 그러한 특질을 만들어 내는 어떠한 구성 요소 또는 일련(一連)의 변화하는 구성 요소로서 궁극적 산물로 보았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상호작용하고 서로 연관된 역동체로 보고, 이러한 능력들의 수용력 또는 장점들의 다양함은 가족생활주기를 통하여 발생되고 발전되어 나간다고 생각했다. 구성 요소들의 결과 “Family Strength”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Otto는 Family Strength의 구성 요소로 다음의 11가지를 지적한다.

- ① 가족의 신체적·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요구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②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에 대한 민감한 지각 능력
- ③ 의사소통 능력
- ④ 지원, 지지, 격려를 제공하는 능력
- ⑤ 가족 내외에서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관계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능력
- ⑥ 이웃, 학교, 지역사회, 정부와 건설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 관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능력
- ⑦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통해서 성장 발달할 수 있는 능력
- ⑧ 자립 능력과 아울러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 ⑨ 가족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⑩ 가족성원들의 개인성에 대한 상호 존중
- ⑪ 가족의 단합, 충성, 상호협조에 관한 관심

1962년 Otto의 “What is Strong Family?”라는 연구가 이루어진 후 계속해서 Strong Family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커졌고, Stinnett와 Sauer(1971)는 Oklahoma 대학에서 가족학자들이 지적한 Strong Family의 특성을 조사하여 다음의 6가지 특징들을 밝혀냈다.

- ① 애정과 감사에 대한 표현 능력

- ② 가족원들이 함께 질(質)적 시간을 보내기
- ③ 가족에 몰입(Commitment)하는 정도, 책임감
- ④ 긍정적 의사소통 능력
- ⑤ 종교적 태도
- ⑥ 문제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Stinnett(1981)는 Sanders, DeFrain, Parkhurst 등과 전국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자기 가족의 장점, 가족의 활동, 역할, 의사소통 유형, 가족성원 상호간의 관계(친밀성, 갈등) 등이 무엇인가에 응답토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Family Strength로서 사랑(14.2%), 종교(10.9%), 존경(9.8%), 의사소통(9.1%) 그리고 개인성 존중(9.0%)으로 지적하였으며, 응답자의 가족들을 강하게 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가족이 함께 외출 또는 외식하기(12.5%), 휴가(10.3%), 교회(9.6%), 운동(6.5%) 등으로 나타났다. Stinnett와 그의 동료들은 미국 정부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 1979년 “Family Strength Inventory”를 제작하였고, 1981년부터 계속적으로 전국 조사를 실시하여 “Family Strengths”라는 연구 보고서를 제 5권까지 발표한 바 있다(Stinnett et al., 1980).

미국의 경우 높은 이혼율, 청소년 범죄, 가족학대·폭력, 알코올·마약 중독자 등 갖가지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1970년대에 Strong Family에 대한 연구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Laurence와 Barnhill(1981)에 의한 Healthy Family에 대한 연구는 가족을 정신병리의 기본적 단위라고 보는 가족치료적, 정신의학적 관점이다. 즉, 인간의 정신건강의 근원지가 가족이며, 병리적 현상은 가족의 기능약화·불균형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한 가족기능의 차원을 정체감, 변화(융통성), 정보처리과정, 역할구조와의 4개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때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병리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Healthy Family System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가족치료 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Ackerman, 1968; Minuchin, 1971).

또한 Curran(1983)은 건강가족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건강가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15가지의 속성을 지적하였는데, 앞의 항목일수록 응답자들이 높은 응답 경향을 보인 것이다.

- 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
- ② 서로 긍정적이며 협조적이다.
- ③ 타인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는다.
- ④ 서로 신뢰한다.
- ⑤ 놀이와 유머에 대한 감각이 있다.
- ⑥ 공통적인 책임 의식을 갖는다.
- ⑦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 ⑧ 의식(儀式)과 전통을 존중하는 가족 관념을 가지고 있다.
- ⑨ 구성원들간에 균형 잡힌 상호작용이 있다.
- ⑩ 공통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다.
- ⑪ 서로의 개인생활(privacy)을 존중해 준다.
- ⑫ 타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 ⑬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는 시간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 ⑭ 여가 시간을 같이 즐긴다.
- ⑮ 문제가 생기면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다. 등이다.

소화 54년(1979년) 일본 가정학회 가정경영학부 관동지구에서 조사하고 横山光子와 大森祁子에 의하여 감수된 일본 가정 생활의 건전도 조사는 현 사회의 병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 전후의 고도 성장은 일면 생활의 풍요를 이루었으나, 가정 생활의 내면적 구조에는 오히려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한 점도 있었다. 특히 고도 성장으로 강행된 노동력(인구)의 급속한 산업간, 지역간의 배치는 농어촌의 과소화와 도시의 과밀화, 과대화, 과거 지역사회의 안정된 인간관계의 붕괴, 핵가족화, 전통적 교육과 학습 체계의 붕괴 등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만한 새로운 가치 체계나 제도가 종합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채 인간의 전통적 생활양식은 파괴되고 생활의식마저도 혼돈 상태에 빠져 많은 가정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일본 가정경영학부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의 당면 문제를 가정학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가정의 건전도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것이다(横山光子·大森祁子, 1979).

일본에 있어서의 가정 생활 건전도 조사는 1978년 약 30명에 대하여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한 후 가정 생활 내용의 9개 영역 ①가계·직업 ②주환경 ③식생활 ④건강 ⑤가족관계 ⑥가사 ⑦남편 ⑧아내(부인) ⑨자녀 보육 및 교육에 대하여, 매우 만족·보통·매우 불만의 3점 Likert식 척도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광동지역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하여 회수된 816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9개 영역이 통합된 하나의 척도가 아니며, 각 영역마다 그 영역의 특수성에 따라 질문 내용은 각기 다르게 작성되었다. 조사의 결과가 방대하므로(1권의 책자) 이 조사에 대한 논의는 한 권의 책자·가정 생활의 건전도 조사 보고, 横山光子, 大森祁子·新しい 家庭生活을考える-로 발간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가정의 건전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변모 가운데 종래의 생활양식 붕괴, 즉 생활·분해라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가정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가정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여 가정 생활을 유지·발전시키려는 여러 측면의 노력의 정도(강약)를 가정 생활의 건전도라 정의하고 있다(横山光子, 1978). 건전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병리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병리도란 가정 생활의 붕괴·분해에 이르게 되는 기능 상실의 정도(강약)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건강가족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족을 사회적 단위로 보고 그 내부의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개인성존중, 격려, 칭찬 등 개인 발달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 미국사회가 개인중심적 사회임을 단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 가정학자들의 연구로서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연구로서 가정의 인적·물적·관리적 제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사회학자들이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일본 가정경영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이므로 그 차별성을 감지할 수 있다.

2. 우리 나라의 연구

① 건전가정

건전가정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이르러 유명주(1991)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건전가정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유명주(1991)는 가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좀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으로 정의코자 하였다. 즉, "건전가정이란 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가정이다"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가정의 건전도는 가정의 기능 수행과정이며, 기능수행 정도는 남편의 수행도, 아내의 수행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수준으로 높게 수행하는 경우 집단으로서의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기능 수행에 있어서 부부가 가족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가족은 불과 1/3(33.2%)에 지나지 않음을 밝혔으며, 이는 가족기능 수행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인하여 한국가정의 건전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건전가정 발전 방향을 위한 많은 학술 세미나 및 연구(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1994; 지영숙, 1994; 서병숙, 1994; 지영숙·이영호, 1996, 1998)가 이루어졌다.

서병숙(1994)은 건전가정이란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가족가치관과 가족체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가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가정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영숙·이영호(1996)는 가족은 애정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의 결합이지만 가정생활은 인간관계의 협력체계와 물질체계의 통합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건전'하다는 의미는 건강을 포함하여 각 체계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단계적 개념으로서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지영숙·이영호(1998)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그 기능들의 수행을 위한 올바른 태도, 실천하는 용기,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정도를 가정 건전도로 정의하고, 그 정도가 높

은 가정을 건전가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한국적 문화와 한국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가정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② 건강가족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건강가족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되어져 왔으며(윤진, 1983; 김항중, 1992; 유안진, 1994), 따라서 개념설정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우선시 됨을 알 수 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아동'이라는 주제의 아동학회 학술대회에서 유명주(1994)는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함으로써 가족체계 내에서의 개인 및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원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가치)적 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어은주·유명주, 1995).

가족의 건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척도들은 그 대부분이 서구 문화권에 특유한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제시되고 있으며, 임상이나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들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은주·유명주(1995)는 기존의 측정도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국인의 가치관에 맞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였다.

정방자·최경희(1995)는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때 건강한 관계가 확립된다고 보았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건강한 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생 초기에 부모에게 건강한 애착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점, 진정한 의미의 부모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중요한 역할의 분석, 통찰, 훈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좋은 감정이 자녀양육에 핵심이 된

다는 점을 밝혔다.

가족이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시기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발달적 변화,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변화를 잘 극복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가족은 좀더 기능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건강한 가족이 가족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응집성과 적응력을 통하여 가족의 기능이 측정되는데, 기능적인 건강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변화에 잘 대처하는 기능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육선화, 1995).

한국도시 부부의 건강한 결혼 관련 변인연구(송정아, 1995)에서는 남편의 결혼 관계 건강지수가 아내들보다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나 결혼관계에 대한 부부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건강한 결혼을 예견하는 변인에는 남편에 있어서는 존경과 대화, 아내에 있어서는 애정, 문제해결능력, 성생활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심리적인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봉렬(1996)은 가족의 기본적인 목표란 가족의 공동육구를 충족시키고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며, 가족구성원의 정서적인 안식처를 제공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의 전체적인 체계가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을 때를 건강가족, 건전가족, 또는 정상기능가족이라고 하였다.

한국도시가족의 건강성 정도와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어은주·유영주, 1997)에서는 한국 도시가족의 건강성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가족의 건강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개인적 특성으로 밝혀졌다. 즉, 각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해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족전체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가족을 구성하는 하위체계들간의 관계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의 필요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를 주축로 하여 건강가족상 정립을 위한 워크샵(허봉렬, 1997)과 다수의 학술세미나가 개최(차재호,

1997; 황준식, 1997)되었고, 최근에는 전 국민 건강가족 실태조사(허봉렬, 1998)가 이루어졌다. 유영주, 이정연, 오윤자(1998)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예비 부부들의 건강한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결혼 후 부부 및 가족관계의 적응을 돕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건강가족의 특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태도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전가정·건강가족의 연구가 가정학자들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사회학, 의학, 사회심리학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특히 가정학이외의 사회과학자들은 건전가정이나 건강가족을 거의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개념지우고 있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타 사회과학자들은 건전가정이나 건강가족을 같은 개념으로 정의내린다 하더라도 가정학자들간에는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설정에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고 차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된다.

Ⅲ. 건전가정·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을 위한 논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하여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을 차별적으로 설정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가정학에 있어서 건전가정이나 건강가족을 연구할 때 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서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이 각기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서 실제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이 더욱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의 개념설정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에 따라 진술하였으므로 그의 논리성과 적합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토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간의 연구(건전가정이나 건강가족)는 수(數)적인 면이나 질(質)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건전가정이나 건강가족의 개념을 명

확하게 구분 짓지 않고 있으며 혼용해서 사용하는 듯하다. 유영주는 건전가정을 “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가정”이라 했는데, 옥선화는 건강가족을 “가족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가족”이라 언급하고 있다(옥선화, 1995-258). 또한 유영주는 건강가족을 “가족원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이라 정의한데 비하여, 서병숙은 건전가정을 “가족원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이며 가족가치관과 가족체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가정”이라 정의하여 유영주의 건강가족의 정의와 유사하다. 지영숙과 이영호는 유영주의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 이외, 기능을 위한 태도, 실천하는 용기, 의식적 노력정도라 하여 행동적 차원뿐만 아니라 의식적 차원까지 언급하고 있다. 어은주(1995)는 건강가족에 대하여 공동체적·정서적·도덕적 관계에 강조점을 두고 정의하였으며, 허봉렬은 건강가족을 다른 연구자들의 내용에 덧붙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건전가정의 정의나 건강가족의 정의가 유사하며 같은 내용의 개념정의이면서도 학자에 따라 그 개념을 건전가정 또는 건강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정의가 모호한 것은 학자들마다 건전과 건강의 개념차이를 명확히 구분 짓지 않고 있으며, 가정과 가족의 개념조차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가정과 가족이 사회적 단위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이며 건전과 건강이 비슷한 개념이므로 이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있으나 가정학이외의 사회과학자들의 혼용은 이해될 수 있으나 적어도 가정학자들간에는 그 차별성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건전과 건강의 개념차이를 살펴보고 가족과 가정의 개념차이를 지적하여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IV. 결 론

1.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설정

건전가정은 건전과 가정의 합성어이며, 건강가족은 건강과 가족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설정을 위하여는 건전과 건강의 개념차이를 지적하고 가정과 가족의 개념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

건전(健全)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 ① 건실하고 튼튼하고 온전함(soundness)
- ②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고 온전함(healthy and mean)
- ③ 의지가 확고하고 중용을 잃지 않는 상태, 감정에 쏠리지 않고 분별이 있음.(한국어사전편찬회(1986). 국어대사전, 삼성문화사)

으로 되어 있다. 또한

건강(健康)이란, 몸에 아무런 탈이 없이 튼튼함, 육체와 정신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상태(health)로 정의되어 있다. 건전이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의지가 확고하고 중용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상황판단이 편파됨이 없이 정상적이며 위태롭지 않은 태도로, 보다 포괄적이고 도덕적 윤리적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건강이란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건전이 건강보다 포괄적이고 광의의 개념이면서 사회적 규준에 반하지 않는 도덕적·윤리적 상태까지를 포함하여 정의 내리고 있다. 가정과 가족의 개념차이는 앞 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이 가족보다 더 넓은 개념이며 가정의 분위기, 환경까지 포함한다. 가족은 가족원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가족 상호간의 관계를 이룩하는 사회의 일차적 집단이다.

이상의 것을 종합하여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정코자 한다.

◎ 건전가정(sound home)

가족원이 건강하고 건실하며 가족의 제 기능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제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

◎ 건강가족(healthy family)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대화기술, 의사결절과정,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

따라서 건전가정을 연구하기 위하여는 가족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의 제기능(애정·성·자녀양육·교육·경제적·친척관계유지·가정관리)에 대하여 태도와 의식 및 수행정도를 조사 검토하고 가정의 제기능을 잘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가족 연구를 위하여는 가족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위하여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 내용과 정도, 친밀도, 응집성, 적응성의 정도를 검토하고 균형 있는 상호작용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모색을 위한 실천적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건전가정은 건강가족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며 건강가족은 건전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하위개념이라 볼 수 있다. 건전가정 연구를 위하여는 가정학 전반에 대한 기초이론을 적용시켜야 되므로 가정학자들의 공동연구가 바람직한 것이며 건강가족을 위하여는 가족학·가족관계 연구자들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면서 소비자·가계관리, 가족자원관리 전공자와의 연계연구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가족관계, 가족자원관리, 가족경제와의 연계연구는 타 사회과학분야의 가족학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가정학적 고유한 가족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설정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가정과 가족을 보는 시각에 대하여는 언급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대한 고전적 관점—존재론적 관점이나 관리적 측면—으로 가정·가족을 정의하는 것과, 사회변화에 따라 1970년대에 발전된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가정·가족의 개념,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는 해석학적, 비판적 관점에서의 가정·가족의 정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윤지현, 1998).

즉 고전적 접근에서는 의·식·주 생활에 대한 분석과 관리가 포함되어야 하며,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가정과 가족을 둘러싼 미시환경, 광역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에 비하여, 실천적·비판과학적 접근에서는 인간과 가족이 중심이 되어 인간과 가족을 위한, 인간과 가족에 의한 가정과 가족의 주변환경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주체적 입장에서 가족정책,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접근에 따른 시각에 입각하여 가정·가족의 개념정의는 사회와의 유기적 상호관계, 또는 사회개혁을 위한 주체적 입장에서 그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광웅(1988).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박영사
 김항중(1992). 건강한 가족내의 의사소통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대전대 사회과학 논문집. 145-153.
 서병숙(1994).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75-279.
 송정아(1995). 한국도시 부부의 건강한 결혼관련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69-78.
 어은주·유영주(1997).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69-285.
 옥선화(1995). 가족의 위기와 전망. 한국가족문제-진단과 전망. 한국가족학회 편.
 도서출판 하우.
 유안진(1994).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아동. 아동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유영주(1991).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3.
 _____(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제 16차 한국아동학회 총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_____(1996).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공보처

- 이정연·오운자(1998).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 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이론 및 프로그램-. 도서출판 하우.
- 윤지현(1998). 가정과 교육의 목표설정을 위한 기호로서의 생활의 개념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1983).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 : 부부와 자녀 및 노부모와의 단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연세대.
- 장상호(1986). 행동과학의 연구논리. 교육출판사.
- 정방자·최경희(1995).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정신역동적 연구. 영남대 학생연구. 1-12.
- 지영숙(1994).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정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81-287.
- 지영숙·이영호(1996).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와 가정 건전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77-90.
- 지영숙·이영호(1998). 한국가정의 건전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233-250.
- 차채호(1997). 왜 건강가족인가. 한국의 좋은 가정포럼 및 사례 발표회.
- 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1994). 한국건전가정의 발전방향. 학술세미나 자료집.
-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1997). 가족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관계. 제 4회 건강가족포럼. 6.
-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1997). 건강가족과 청소년. 건강가족상 정립을 위한 포럼.
-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1997). 중년기 여성의 갈등. 제 2회 건강가족포럼.
- 허봉렬(1996). 건강한 가족이란 어떠한 가족인가? 제 3회 가정의 날 기념행사.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 허봉렬(1997). 건강가족 실천 운동의 방향과 과제. 건강가족상 정립을 위한 워크샵.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 허봉렬(1998). 전국민 건강가족 실태조사. 연구성과 보고서.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 황준식(1997). 가정의 등불을 밝히자. 건강가족상정립을 위한 워크샵.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 황준식(1997).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길.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 East. M(1981). Home Economics-Past, Present, and Future, Allyn & Baen Inc.
- Otto, H. A.(1962).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 77-80
- Stinnett. N, Sanders G., Defrain J., and Park hust A (1982). A Nationwide study of Families of Families who perceive Themselves as Strong : The Family perspectives 16 : 15-22.
- Stinnett. N, Walters. J, Kaye(1984).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Stinnett. N, Chesser. B, DeFrain. J, Knaub. P,(1980). Family Strengths- Positive Models for Family lif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urran Dplores(1983). Traits of Healthy Family, Winston Press.
- 日本家政學會 家庭經營學部會 관동지구 橫山光子, 大森祁子: 新しい家庭生活 を考える-家庭生活健全度 調査 報告-. 樂游書房 소화45년 1979.
- 日本大學總長指定の 綜合研究 '現代日本文化の特質に關する 研究' : 平成 元年 1988.